

한국조경연구의 성찰과 평가

정 영 선*

—〈目 次〉—

- | | |
|------------------|-----------------------|
| I. 서론 | IV.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몇가지 경향 |
| II. 우리나라 조경계의 현황 | V. 결론 |
| III. 조경의 속성 | |

I. 서론

한국조경을 들여다 보는 자리에는 으레 언급되는 것들이 몇 있다. 70년대의 본격적인 경제 개발과 산업화의 추진 및 그에 따른 국토개발의 대역사는 전문분야로서 조경이 대두된 배경과 관련된 사회적 수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73년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조경학과 신설은 그 같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시도로서 한국조경 성찰에 빠지지 않는 메뉴이다. 그에 더해 74년 한국종합조경공사의 설립도 전문직종으로서 조경이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디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국조경 성찰의 자리에는 몇가지 지적되는 문제외에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는 식의 상대적 발전론도 꼭 끼는 자화자찬식 결론의 하나이다. 그같은 평가의 근거로는 20개가 훨씬 넘는 대학에 설치된 조경학과수와 1년에 10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수, 250개에 달하는 조경공사업체와 50여개가 넘는 조경설계업체 등 대체로 양적인 성장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양적성장론은 전문분야로서의 학제와 법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적어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용어로는 적절치만은 않은 것 같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사람에 비취봐도 성년이 되는 해이며, 성년이 된다는 것은 보다 성숙해지고 한단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물질적 수준의 향상은 곧 조경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수요가 질적인 것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않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 글은 조경 대내외적 환경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그간의 조경분야 성장을 수치로 분석평가하는 식의 양적 검토에서 벗어나, 필자가 해온 일과 관련하여 주로 조경

* 조경설계 서안(주) 대표(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제6회)

설계의 질적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들이 실제 다루고 있는 조경업무와 작업의 내용이나 과정을 전문분야의 성립요건과 대비시켜 살펴보므로써 확고부동한 하나의 전문업으로서 조경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해본다.

둘째 실제 조경작업들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나 속성과 대비시켜 봄으로써 조경 본연의 가치와 흔히 수행하는 실제적인 작업간의 괴리를 확인 도출해본다.

셋째 이같은 조경업 자체와 설계작업이 노정시키는 근본적인 미비점을 감안하여 우리들이 해온 설계에 나타나는 몇가지 대표적인 경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우리나라 조경계의 현황

하나의 전문분야가 대두 형성되는 계기는 시대사적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거쳐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대두되거나, 인위적인 힘에 의해 어떤 특정의 시점에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2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인간 삶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주로 전자에 해당되며 새로이 생겨나는 분야일수록 후자에 속한 경우가 많아 조경도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인간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방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하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조경은 분명 70년대초 산업화, 경제개발에 부수되는 역작용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수요에서 비롯되었지만, 전문교육, 전문직종의 직접적인 형성계기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정설이다. 환경대학원의 경우에도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
- 현충사를 비롯한 국난극복 사적지의 복원과 재정비
- 고속도로개설에 따라 노출된 대규모 절개면의 경관개선
-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등 당시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설립되어졌다.

특히 대학원 또는 학과에 “환경”이라는 명칭이 붙게된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 지난 20여년간 전문분야로서 조경은 적어도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한국조경사 연대표 참조). 그러나 하나의 전문업으로서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조경분야를 고찰해보면 아직 몇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사회적 수요나 사회적 공인, 제도 등 대외적 여

1) 문석기(1983),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p.4.

○ 한국조경사 연대표 요약

년 도	학 계	업 계	제 도	주요작품
60년대		67 대한관상수생산업자 협회발족	62 문화재보호법제정 67 공원법제정	61 동작동 국립묘지 65 한남외인APT 69 서울-천안간고속도로 변 조정
70년대	72 한국조경학회발족 73 서울대 농대 조경과, 환경대학원, 영남대 조경학과신설 74 청주대 조경과신설 75 동국대, 시립대, 신구/경남공전 조경과신설 77 상지병설전문대 조경과신설 78 성균관대 조경과신설 제1회 전국대학생조경작품전 79 효성여대 조경과신설	73 서울7개구청녹지과 서울시녹지국 신설 74 한국종합조경공사설립 75 제1회전국공업단지 조경우수업체선정	70 국토종합개발심의회 국토종합개발10년 70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정 71 건설업법/시행령제정 71 도시계획법 제정 73 기술용역 육성법제정 75 조경분야 국가기술 자격시험실시 76 제1회조경기술사배출 (한국기술검정공단) 77 건축법개정(조경에 관한 조항신설제9조) 조경분야 기술용역업 신설 및 용역책정	73 반포APT 75 창덕궁 보수공사 잠실아파트 77 구마고속도로 78 고리원자력발전소
80년대	80 홍익대 환경대학원, 경북대 조경과신설 81 목포대 조경과신설 82 한양대 환경대학원, 전남대 조경과신설 84 경원대, 동아대, 전북대, 조경과 신설 85 대구대, 밀양농전 조경과신설 86 강원대 조경과신설 87 순천대, 호남대, 조경과신설 88 전주우석대, 동신공과대 조경과신설	80 조경가협회창설 한국조경사회발족 정원학회발족 82 한국조경연합회발족	80 공원법 폐지 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 제정	80 종합전시장주위조경 81 파천신도시조경 서울대공원조경 84 목동신시가조경 아시아체육공원 아시아선수촌 서울종합운동장주변조경 86 독립기념관건립 국립현대미술관개관 서울올림픽공원 개포시민의숲 한강종합개발사업 예술의전당건립 87 파리공원 조성공사 88 올림픽선수 기차촌 89 반월신도시
90년대	90 한국관광대 조경과신설 91 전남대 환경대학원신설 92 공주대 조경과신설			91 썬마당조성공사 92 성남분당 중앙공원 제29차IFLA개최 (서울, 경주) 93 대전세계박람회장

건과 관련된 것보다는, 조경업의 개별성, 타분야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능력의 선언, 체계적인 지식 등 우리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²⁾

다시 말하면,

· 우리 조경인들이 하고 있으며 해야하는 일들이(전부는 아니나 많은 부분에서)뚜렷이 구별되지도 않을 뿐더러,

· 인접한 다른 직종의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입증하고 선언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 지식과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변화,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 논리적인 구색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가 못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실제 업역상으로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인접분야와의 업역구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조경으로서는 이같은 대내적 능력에서의 문제는 곧바로 분야의 존립자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점은 '많고 다양한 것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에 대한 깊이는 알 수 밖에 없는' 분야학(field)으로서의 조경의 속성과 결부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문분야로서 조경의 탄생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즉, 오랜 사회적 요구가 축적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 인위적으로 법적, 학제적인 틀을 갖추어 생겨난 조경으로서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인접분야와 사회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각분야가 공히 인정하는 정확한 업역구분의 과정이 생략될 수 밖에 없다는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부지내 조경 및 경관형성의 기반이 되는 토공, 벽천, 분수, 계류 등의 수경구조물, 보행자용 공간의 포장, 보행교, 계단, 사면,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간단한 공원건축물, 환경조형물 등은 프로젝트의 규모를 떠나 토목, 건축 등과 거의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대상들이다. 이제 조경가에게 부여되는 웬만한 과제에서 이같은 연못이나 계류, 분수 등의 수경요소와 연못 위의 보행자용 다리, 장식용 벽체(가벽) 등은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되었다. 조경공사비 중에서 식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져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준다. 어느 하나 조경설계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대개가 수리학, 구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여러분야에 걸친 폭넓고 분명한 지식을 기초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경전문직의 전문성 확보와 업역확보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다.

2) 평범한 직업이 하나의 전문업으로 정착, 진화하기 위한 구성요건 1. 사회적 수요(social needs), 2. 개별성(Uniqueness), 3. 우월한 능력의 선언(Competence and Profession), 4. 사회적 공인(social acceptance), 5. 체계적인 지식(Systematized body of knowledge), 6. 제도(Standard Procedure), Lewis B. Mayhew and Parick J. Ford(1974), *Reform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 (London: Jossey-Bass PuB), pp.1-3, 황기원(1983), "조경교육의 구조와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Vol. 11-1, p.4에서 재인용.

Ⅲ. 조경의 속성

시각환경 디자인으로서 조경설계의 출발시기는 앞서 말한 조경업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경시공 분야는 수목을 비롯한 구체적 대상요소가 있어서 건설현장이라는 공간적인 환경에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미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현실로 존재하여 왔다. 물론 그때에도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꽃과 나무를 어디다 심으며 화단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를 사전에 구상하기야 했겠지만 제도판 위에 자와 연필로 선을 긋고 평면도를 작성하는 설계행위는 아마도 그와같은 시공공정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부터 대두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조경설계라는 것을 삶의 장을 보다 더 살만하고 보기에 좋게 꾸미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여기에는 幾能과 美라는 두가지 커다란 관심영역이 대두된다. 여기서는 조경설계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논의의 초점을 조경의 예술적 차원에 주목하기로 한다.

● 조경 = 종합과학예술?

조경이라는 분야를 정의함에 있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조경은 종합과학예술’라는 말이다. 20년전이나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역시 이 단어들은 성경의 驚句처럼 우리들 뇌리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종합과학예술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남겨 놓은 흔적들을 종합과학예술이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조경이라는 영역속에는 분명 과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 수목학, 생태학, 토양학, 구조역학/공학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식이 조경이라는 분야를 에워싸고 있다.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작업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실감한 경험이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각각의 분야보다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현실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상식적 수준을 약간 넘는 지식들일 뿐이다. 물론 전부가 이런 수준인 것은 아니지만 심도가 깊은 것은 깊은 것대로 낮은 것들은 낮은 것대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이라는 분야가 순수기초학문 분야가 아니라 실제 生活을 이루는 삶의 장치를 마련하는 응용분야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지금 요구되는 것은 각각의 과학적 지식들을 ‘조경화’ 하는 作業일게다. 더구나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위기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조경가의 임무는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조경가들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심도있고 체계있는 조경화 작업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양상 즉, 환경과 관련되는 건축, 조경 등의 고전적인 업역에 조각, 미술 등 예술적인 차원이 가미된 채 여러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은 분명 우리 조경가에게 또다른 도전욕과 가능성

의 지평을 제공해주는 듯하다.

● 예술로서의 조경

또하나 조경을 정의하는 중요한 단어는 '藝術'이다. 이 단어는 앞서 언급한 科學이라는 용어와 병립할 수 없는 단어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각각이 추구하는 이념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리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이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소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예술'이라는 것이 人間에게 던져주는 것은 세상을 살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필연에 입각해 있는 '필요(need)'와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불필요한 필요 즉, '잉여의 필요'를 자극함으로써 생겨나는 욕망을 소유하는 존재라고 한다 이 욕망을 인간의 총체적 발전가능성에 결부시킴으로써 '예술'이라는 분야가 생겨났으며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욕망의 충족에 그치지 보다는 지향성을 통해 현상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³⁾

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사회 여기저기에서 잉여의 필요를 자극하는 욕망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조경을 하는 이들은 이 욕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인 스스로가 예술가적 자질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 '예술로서의 조경'을 추구하기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기존의 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오는 결과품(도면, 보고서, 등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의 가장 손쉬운 방안의 하나이다. 먼저 결과물을 남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조경이 예술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설계자들이 자신의 作品을 설명하는 기회(외국의 건축가, 조경가들의 작품집, 저서 등과 같은 활동)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보고서의 양식도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후세의 조경가들이 지금의 조경가들의 설계과정이나 이론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바로 현재의 보고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설계보고서를 통해 읽어내고자 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나 '설계사고의 전개과정' 등일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주변에 무수히 만들어지는 설계보고서에서 이런 기대를 하기란 무리인 것 같다. 우리 주변에 설계작품의 보고서는 많지만 그 속에서 조경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보고서는 그닥 많지가 않다. 모든 것이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필요성'이란 이름으로 숫자화하고 도표화 된다. 왜 그런 형태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됨이 없다.

3) 김우창(1972), 심미적 이성의 탐구, 술 pp.27-49.

두번째 관점은 새롭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비평'의 풍토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조경설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자극이 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비평文化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터부시되고 금기시되던, 때로는 뒷자리에서나 오고가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는 공개된 장으로 나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평전문가도, 비평의 매체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자기작품에 최선을 다해놓고 솔직하게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내 작품에 대한 남의 평가는 나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설계작품에 대한 공개된 의견과 평가를 나누는데 아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비평이라는 것도 그 대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니 온전한 비평을 위해서는 비평할 만한 대상작품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 조경계에서는 이 점이 비평문화의 위해 요구되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근간 츠미(Bernard Tschumi), 슈와르츠(Martha Schwartz),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 발켄버그(Michael Van Valkenburgh) 등의 가치 실험적이고 비평적인 작품이 불러일으킨 미국의 활발한 비평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있는 작품, 문제의식이 있는 설계작품의 창조작업은 그 자체가 바로 비평의 출발점인 것이다.

Ⅳ.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몇가지 경향

일천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조경설계사를 감안하면 설계에 있어서 특정의 경향을 분류해 내기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또, 당면한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 문해해결에 급급해왔던 설계업체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설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이즘(ISM)이나 철학의 꼬투리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리인줄 잘 안다.

그러나 조경이라는 행위가 인간삶과 밀접되어 있는 것 만큼이나 설계라는 행위도 행위자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시대사조와 떼어낼 수 없는 것일 수 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해온 작업들은 알게 모르게 오늘의 우리삶이 투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우리들의 조경설계 작업과정이나 결과물들에 공통적으로 개재되어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경향으로 정리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글이 학술적 체계적 논거에 입각해 새로운 원칙이나 이론을 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경향'이라고 해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에 들어맞는 분류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통상 우리들이 조경(설계)작업에서 취하고 있는 몇가지 태도(접근방식)에 따라 글을 전개시키고자 한다.(여기서 잠깐 본글에서 다루고자하는 이른바 '조경작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설계라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로서 주제적 미체험에 의한 자기고백이어야 한다⁴⁾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우리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조경설계작업과 그것을 주대상으로 하

4) 조요한(1981), "전통미와 정통의식", 「계간미술」 겨울호, p.56.

러는 본 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줄 안다. 그러나 창조되어지는 예술작품이 누구에게나 같은 느낌과 목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조경설계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글의 주대상이 되는 '조경설계작품'이 누구에게나 공히 인정될 수 있는 가치와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우리 주변의 많은 조경인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조경설계작업의 결과물까지 포함할 수 밖에 없음을 실제 평가기준상의 애로와 아울러 필자의 무딘 안목에도 일부 기인한다.)

● 장소맥락주의적 접근

조경설계의 작업은 대상이 되는 장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그 장소가 지닌 환경적 특성(environmental text)의 총체로서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그곳에다 최종적으로 구현할 기능이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것이다. 경관이라는 것이 그것이 속한 지역풍토의 산물이라고 할진대 경관을 창출하는 조경설계가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설계작업에서 장소에 대한 해석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이라는 것도 지극히 형식적, 개념적인 것에 그칠뿐 분석결과가 설계작업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미 조사분석은 실제 결과물의 형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습관적인 타성이 낳은 산물일 뿐이다. 현황조사분석, 자연환경분석, 인문사회환경분석 등은 책에서나 하는 말이거나 기껏해야 보고서에 실리는 말일뿐 최종적인 설계안은 또다른 블랙박스에서 나온 이복아이일 뿐이다. 장소성(Placeness), 장소령(Spirit of place)라는 말은 아련하게 머리속에만 존재하는 용어일뿐 적어도 설계행위와 그 조형개념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보니 우리동네에다 설계된 안이 남의 동네에서 나온 안과 그닥 다를게 없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놓여지는 환경특성과 다소 무관하게 여러 곳에 비슷비슷하게 배치되는 것일수록 이런 양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서울시에 계획되는 근린공원안들이 다 그렇고 그런 안 일색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조경가란 직업이 풀빵장수와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 기능주의적 접근

조경은 생활환경을 보다 살만하고 쓰기 좋게 꾸미고자 하는 필요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은 조경설계의 1차적 관심이 기능에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장이 지녀야 할 기능과 용도에 입각한 실용성이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는 목표로 내세워지는 것은 조경설계작업에서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기능이나 용도에 맞도록 땅을 가르고 길을 내며 나무를 심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쓰임새에 얼마나 잘 부합되며 얼마나 빨리 편히 갈 수 있느냐가 조경설계의 주관심사가 된다. 이같이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은 상세한 분석도면에 의거한 과정(process)를 중요시하며 합리성을 중시하는 등 적어도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생태적 접근과 유사하다. 논리적인 사고와 실용적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최우선시 될 뿐 비능률적인 요소나 이유가

없이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조경이 단순히 '필요'의 차원이 아닌 '잉여의 필요', 즉 예술로서의 조경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충족'은 필요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통상 예술분야에서 많이 구사되는 모호성(ambiguity), 은유(metaphor), 의외성, 재치와 장난기, 재미 등의 용어는 이미 타분야의 얘기이지 만은 아니지 않은가? 가난할 때에야 옷이란 몸과 살을 가리기에 적합하나(fit), 그렇지 않느냐(misfit)가 주안점이 되지만 살만해지면 맞고 안맞고 보다는 보기에도 좋고 스타일에도 맞는 멋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 마스타플랜적 접근

조경설계작업과 그 결과물인 설계작품은-그 내면적 깊이와 질의 고저를 차치하고-고도의 복잡한 내적 사고 과정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다. 통상 설계안은 마스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구상되고 제시되어진다. 마스타플랜이란 말에는 그 한장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온갖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어쩌면 전지전능한) 가장 이상적인 안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럴듯한 그림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에 그 속사정은 알 길이 없다. 설계작업과정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연유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놓여질 장소적 상황도 무시되기 일쑤다. 구체적 대상요소의 개별적 특성이나 그 장소가 갖는 독특한 분위기나 섬세한 질감은 이미 고려될 만한 차원이 아니다. 이리하니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호나 문화적 태도, 현장의 물리적 조건, 재료가 갖는 디테일 등과는 괴리되기 쉽상이다. 우리가 하는 조경은 다분히 이같은 마스타플랜에 많이 의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문분야의 설계작업으로서의 조경이 마스타플랜만이 전부기 아닐진대 우리는 가급적 이 마스타플랜이 갖고 있는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디테일한 설계, 몇십분의 일 스케일까지 들어간 세밀한 작업을 통해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고 살아있는 장을 조성해 내어야 할 것이다.

● 조형주의적 접근

끝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똑같은 공간을 사열하듯이 배치하는 것이 근대 이전의 프랑스 기하학식 정원이나 대규모 조경설계에서 흔히 해온 작업이라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자연을 흉내 내려고 한 것은 18세기 이래 전세계를 휩쓸다시피한 풍경식 정원이 추구한 형태였다. 조경설계작업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은 아마도 전체의 골격을 짜고 개별공간의 모양을 결정짓는 단계일 것이다. 직선, 사선, 곡선……. 종이 위에 무수한 선긋기를 반복하여 꼴을 완성지어나가는 과정. 끄끙 앓으면서 며칠동안 트레이싱지만 축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순간적인 영감에 의해 신들린듯 그려 나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설계란 작업의 묘미이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만들기' 작업에서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도 바로 이 형태에 대한 지나친 추구일 것이다. 그 과정에 몰두하다 보면 무엇을 담기위한 것인지를 망각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형태만을 추구하여 도면위에 그려지는 모양새에만 집착하는 경우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나 기능을 도외시 하기가 쉽상이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별로 크지도 않은 공간에 이것저것 조밀하게 집어넣으면서 형태를 잡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직은 미숙하기만한 모습들이다. 우리는 과제를 받자마자 무언가를 그리려고 하는 설부른 조바심과 함께 형태 제일주의를 경계하여야만 한다. 설계작업에 있어서 모양이란 조형이념의 구체화, 조형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최종산물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 생태적 접근

60년대 미국의 맥하그(Ian McHarg), 스펀(Ann W. Spirn) 등에 의해 주도된 생태적 운동이래 생태학은 분명 조경을 지배하여온 거대한 뿌리 중의 하나이다. 살아있는 꽃과 나무가 주대상인 조경으로서야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생태학적 이해의 당위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조경계획에서 생태적 접근이란 자연을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자연계에 내재하는 생태적 질서에 참여하려는 자세로서 계획 및 설계가의 독단을 최소한으로 배제하고 자연과학에 근거한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자연형성과정, 생태적 기반, 환경적 맥락 등은 생태적 결정론(Ecological Determinism)과 함께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에서의 이념적 기초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생태적 고려만으로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생태적 합리성을 구실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연계의 생태적 질서만이 아니라 미적 질서를 찾아내어 자연을 예술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⁵⁾ 그에 더해 보다 바람직한 조경계획을 위해서는 자연을 인간의 사회적 가치 및 행태측면에서 분석하여 더 쾌적하고 건전한 인간생활을 담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⁶⁾는 사회적, 심리적 측면인 것도 아울러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Elizabeth Kassler는 바람직한 계획과 설계란 인간의 본질과 자연적 본질 둘 다를 감안한 과정의 산물⁷⁾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V. 결론

서구에서 근대화를 마무리짓는 20세기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분야로 대두되기 시작한 조경이 우리나라에 전문분야로서 도입된지 어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전문분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우리 조경인들이 애써야 할 점들이 많다. 조경의 대상영역을 보다

5) Little, Ross S(1975)., *The Economics of a view, Landscape Assessment*(Dowden, Hutchinson & Ross Inc), p.52. 임승빈(1975), "생태적 조경계획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1. p.1에서 재인용

6) 임승빈(1992), "계획의 접근방법", 조경계획론, 문운당, p.82.

7) Elizabeth B. Kassler(1964), *Modern Gardens and the Landscape*(New York: Doubleday), Michale Laurie(1975), *An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Pitman Publishing LTD.), p.151에서 재인용.

명확히 하고, 적어도 그영역에 대해서는 여타분야보다 여러모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술로서 조경작품은 아직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에 우리들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같은 양상은 조경설계작업에서는 근대이후의 자연주의적 사조나 기능주의적 접근과 같은 합리성만 강조될 뿐 작품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인색하였다는 사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작품다운 작품이 적다는 사실의 다른 이면에는 비평이 싹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비평의 장을 마련하고, 비평을 전담하는 전문가 즉 전문적인 비평가도 양성되어야 하겠지만 현 조경계에 요구되는 것은 비평을 불러일으킬만한 작품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무수히 이루어진 조경설계작업은 그 접근태도나 해결방식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요인이야 여럿이겠지만 조경인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바로 우리자신의 자세와 노력에 그 탓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간 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능력을 채 갖추기도 전에 사회적인 요구가 컸던 시기였다. 분명히 지금은 20년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조경'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분야에서 기존 분야를 위협할 정도의 영역확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험하다.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시민 수준의 향상,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시장의 개방, 문명시대의 개막 등 우리의 처한 사회적인 상황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量'에서 '質'로 눈을 돌리게 한다. 더이상 '없었던 것을 만들'으로써 지녔던 효용가치는 절감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 중요한 가치척도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즉 만들면 팔리고, 이용되던 '필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누가 만들었나, 무엇이 다른가가 중요한 '선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부연하면 조경이라는 분야가 '高附加價値를 創出'하는 분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시시대때 생존을 위해 동굴에 짐승을 그리던 본능적 행위(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가 현대에 와서 예술의 분야로 발전했듯이 조경이라는 분야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따라서 이제 막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시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비유는 과연 지나친 억측일까?

최관영: 저는 조경분야라는 것이 제도상으로는 조경기술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과연 이 조경설계라는 분야가 기술분야라고 봐야 할지 또는 디자인 분야로 봐야 할지 평상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창의적인 것을 멀리 하는 것 같고 디자인이라 하면 뭔가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조경설계를 위해서는 토목, 환경공학, 식생에 관한 여러가지가 필요하나,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재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느냐는 창의적 노력에서 나오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접분야와 어떻게 접촉을 시키고 협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도 20년간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며 고민해 왔으나, 이런 분위기는 경험이 많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설계하는 사람과 건축가들이 협력해야 하는데 역부족이며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쪽을 지향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학교교육도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접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유병립: 학교에서 20년 있었는데 좀 자성해 본다면, 우선 서울대학교라는 이름하에 조경분야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학과에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사회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로 비무장지대 도시건설문제, 매립지 건설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압력에 조경이라는 전문분야가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둘째로, 발표자는 조경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선 토목, 건축, 생태 등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관련분야에 대한 재정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뽑는 과정에서나 가르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분야는 특히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정체발견방법에 대해선 연구분야나 실천분야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조경이 20년간 이룬 공과라 생각합니다.